

음악으로 하나된 학생 “학교생활 참 즐거워요”

여수 소호초교 오케스트라단 운영...감성교육 산실로



지난 2012 여수 세계박람회때 예술마루에서 열린 소호초 오케스트라단 공연.



지난해 10월 독일 프라이에 유겐트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

2012년 창단 후 다양한 공연
작년 獨 베를린장벽 협연 화제
올해 어울림 축전 연주도 갈채
여수 8개 오케스트라단 활동
여수교육청 꾸준한 지원 효과

여수 소호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지휘자 최재식) 단원 70여명이 최근 여수 세계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개막식 식전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위풍당당 행진곡' 등을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전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축전은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이 어울려 과학 체험활동을 통해 화합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3만5000여명과 124개의 교육 단체가 참여해 15개 주제관과 213개의 체험 부스, 2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수 소호초등학교(교장 이정주)가 오케스트라단 운영을 통해 '감성교육'의 산실(産室)로 거듭나고 있다. <독일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서 협연>은 지난 2012년 40명의 학생으로 처음 출발한 소호초 오케스트라단은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현재 70여 명으로 훌쩍 늘었다.

지휘를 맡고 있는 최재식 선생은 "아이들의 연주실력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4일 일정의 방학 캠프도 매년 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준높은 연주를 선보이기 위한 소호초 오케스트라단의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아울림 축



여수 소호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이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식전행사에서 멋진 연주를 하고 있다.

전' 초청연주도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 무너진 독일 베를린장벽 아래서 이뤄진 독일 어린이들과의 평화의 하모니 연주는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여수 소호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독일 '프라이에 유겐트 오케스트라'가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서 훌륭한 협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최재식 지휘자의 단독 지휘로 시작된 이번 공연에서 여수소호초 오케스트라는 비제의 '카르멘 서곡'과 민요 '아리랑', 베토벤 9번 교향곡 중 '환희의 송가'를 연주해 호평을 받았다.

베를린 헨델 음악 중등학교 합창단도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으며, 리브레히트가 지휘하는 프라이에 유겐트 오케스트라가 안들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을 연주했다.

양국 어린이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헨델 합창단은 파울 힌데미트의 어린이 노래극 '우리 함께 도시를 만들어요'(Wir

bauen eine Stadt) 협연을 끝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처럼 화제가 된 공연은 독일 베를린 프라이에 유겐트 오케스트라가 소호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소호초 오케스트라 단원 30여명이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을 방문, 악기 레슨과 세계 최정상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관람, 오페라 공연체험 등 수준높은 음악공부 일정을 진행중이었기에 가능했다.

이정주 교장은 "지역 학생들의 감성교육 일환으로 시작된 오케스트라단이 어는새 아이들과 학부모, 학교의 자부심이 됐다"며 "오는 6월23일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예정된 한독 교류 음악회도 차질없이 잘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교육지원청 감성교육 활성화>=소호초 오케스트라단의 쾌거는 수준높은 여수 감성교육이 그 중심 역할을 했

다. 여수시가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일선 학교 학생들의 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등 명실상부한 '감성교육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2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및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 지원청'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감성교육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예술 선도교육 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인성 함양 등 감성교육 확대와 교육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8곳의 오케스트라단 운영 학교를 선정, 본격적인 감성교육의 출발을 알렸던 여수교육청은 꾸준한 예산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16개팀 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감성교육 도시'를 이뤄냈다.

또 학생연합 오케스트라단과 교원연합 오케스트라단, 지역연합 오케스트라단, 여수 영재 오케스트라단을 본격 지원·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수준높은 오케스트라단 육성을 위한 시 교향악단과 관련 대학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또 강사 공동운영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음악교육의 질 또한 높였다. 오케스트라단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지원될 36억5000만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김재인 교육장은 "음악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한 미국 할렘가 아이들처럼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높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감성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박람회재단 신평식 이사장 연임 결의안 채택 시민단체들 "공모 통해 선정하라" 반발

여수 세계박람회재단 이사회가 최근 임기가 끝난 신평식 재단 이사장의 연임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사추위)는 "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리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것은 현 이사장을 연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신임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인사원칙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지난 22일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5일 임기가 끝난 제2대 신평식 재단 이사장을 재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재단은 신 이사장을 재선임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임명권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추위는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현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스럽다"며 "해수부

는 표류중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격자를 다시 공모하라"고 반발했다.

사추위는 "신 이사장은 그동안 운영노력과 소통부재로 끊임없이 문제가 된 인물이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정부가 사후활용 대신 사후청산의 의지를 전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가 사후활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려면 공정한 인사원칙에 따라 유능하고 비전을 가진 이사장을 공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 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은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과 재단 정관에 따라 재단 이사회 추천을 통해 해수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는 국무조정실 관계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상의 28일 한류 세계화 초청 강연회

김인규 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여수 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한류 세계화를 위한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여수상공회의소는 28일 오후 4시30분 디오션호텔에서 한국전쟁기념재단 김인규 이사장을 초청, '한류 세계화로 세계 7대 강국으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여수지역은 국내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서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로

해양의 중요성과 남해안의 중심지 및 국제 해양 관광중심지로 여수의 역할이 새롭게 모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상의는 동남아와 중국,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 한류와 지역 발전을 접목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은 "이번 초청 강연회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며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류와 연계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둔덕동사무소, 주민자치위 등과 나눔·봉사실천 협약

여수시 둔덕동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둔덕동사무소는 27일 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둔덕동 주민자치위, 모두모아 봉사대,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나눔과 봉사실천 업무협약식을 했다.

둔덕동사무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로위안잔치, 주민 지역문화 체험과 월동준비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둔덕동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나눔이 행사, '뽕밭 밭차' 활동 등의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춘철 둔덕동장은 "봉사대의 재능봉사사와 노인복지관의 축적된 복지 노하우, 동 주민자치위의 열정과 지지 등을 잘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배려와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둔덕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강진군 GANGJIN CITY www.gangjin.go.kr

창사 63주년

강진, 그 숨겨진 아름다움

천년의 역사가 긴 잠에서 스프르 깨어나
광활한 대지 위에 그 티를 드러내면
실려오는 바람소리 벗삼아 조용히 걷고 싶은 곳

남도담사번지-강진 검색
네이버 검색창에 '강진' 을 쳐주세요